바야흐로 시방은 연꽃세상

전국 사찰 · 지역 연꽃축제 개막
조계사 등 도심사찰 화장세계
공연 · 체험 등 다양한 부대세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서울 조계사는 7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제5회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 향기'를 개최한다.

'처염상정(處染常淨)'으로 불리는 연꽃은 부처님의 탄생 때부터 등장하는 불가(佛家)의 꽃이다. 경전 곳곳에 등장하는 연꽃은 피고 지고 머무는 모습에서 많은 불가적 의미와 상징을 머금고 있어 존재 자체가 설법이다. 아쉬운 것은 모든 꽃이 그렇듯 연꽃 역시 피어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시방은 바야흐로 연꽃이 피는 화장설법의 계절이 시작됐다. 법당 대신 연밭을 찾아 연꽃이 품은 설법을 찾아듣는 것도 이 시절에서는 현명한 신행이 될 듯하다. 전국의 사찰과 지역에서 연꽃축제가 시작됐다.

△**서울 조계사**는 7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제5회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 향기'를 개최한다. 572개의 옹기에서 개화를 시작한 백련과 홍련 등 다양한 연꽃들이 대중을 맞는다. 이번 연꽃축제는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신주욱 작가의 연꽃화분 그림 26점도 함께 전시되어 백중의 가르침을 새기는 연꽃축제다.

△**서울 봉은사**는 9월 중순까지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500여 개의 연꽃화분으로 도량 곳곳을 장엄하여 마련한 봉은사 연꽃축제는 도량을 찾은 대중들에게 무더위를 잊게 하고 포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연꽃화분으로 이어지는 길과 길은 도심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풍경과 정취를 선사한다.

△**서울 봉원사**는 8월 3일 봉원사 영산보존회의 시연을 시작으로 제17회 서울연꽃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봉원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 행사와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봉선사 경내와 특설무대에서 제17회 봉선사 연꽃축제 '연꽃 위를 걷다'를 개최한다. '숲과 함께 행복과 미래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통등 전시, 먹거리 직거래 장터, 사찰음식 체험 및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진행된다. 20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식전 공연에서는 가수 장윤정, 소찬휘, 임영웅, 국악인 박애리가 출연해 공연한다.

축제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제17회 행복바라미 봉선사 연꽃축제 글짓기 · 그림그리기 대회와 오후 5시부터는 BBS불교방송 특별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그림그리기 부문에는 유치부와 초등부(1~3학년)가 참여하고, 글짓기 부문에는 초등부(4~6학년), 중등부(전학년), 고등부(1~2학년)가 참여하고, BBS 불교방송 특별 공개방송에는 추가열, 양하경, 권미희가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전북 김제시 청운사**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18회 하소백련 축제를 개최한다. 약 1만㎡의 청운사 연지는 백련으로 유명하다. 12일부터 14일까지 특설무대에서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 중에는 청운사 주지 도원 스님의 화천수를 주제로 그린 탱화도 선보인다.

△**부산 삼광사**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제6회 효문화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삼광사는 연꽃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무더운 여름 열기를 식히고 산사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기도 양평군 세미원**은 8월 18일까지 물과 꽃의 정원에서 2019년 세미원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연꽃 외에도 라이트아트, 흙인형 등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작가들과 함께 연꽃 그리기, 페이스페인팅, 스탬프투어, 인증샷 이벤트,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충남 부여군**은 7월 5일부터 28일까지 부여 서동공원(궁남지) 일원에서 제17회 부여서동연꽃국제 '궁남지 사랑, 연꽃의 빛을 발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주말마다 각종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연꽃 개화 시기 동안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무안군**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회산백련지 일원에서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 주제로 한 제23회 무안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10시부터 시작되는 개막식 공연에는 송가인 박현빈 등이 출연한다. 축제 기간 동안 무안요리경연대회,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연꽃 어린이 독서골든벨, 연꽃 유리온실 수석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박생광 회고전

대구미술관 10월 20일까지

불교적 소재로 미술세계를 구현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현대적 감각으로 그려낸 박생광 화백의 작품세계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대구미술관은 10월 20일까지 박생광(1904~1985) 화백의 회고전을 연다.

박 화백은 모노크롬이 주류를 형성했던 80년대 초에 불화, 민화, 무속화 등에서 발견한 토속적인 이미지들을 오방색의 화려한 빛깔로 화폭에 담아 한국 전통화의 현대화를 이끌었다.

특히 박 화백은 80년대에 이르러 민족정서를 기반으로 한 채색화의 새로운 장을 개척해 수묵위주의 한국화단에 채색화의 가치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전통적 불화, 무속, 민화와 같은 형식을 원용하여 강렬한 원색으로 소재를 재구성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세계를 열었다.


박생광 作, 부처 1980

회화와 드로잉 등 박 화백의 작품 162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박 화백이 자신의 화풍을 찾기 위해 분투하며 실험을 시도한 시기의 작업과 '그대로 화풍'의 전개 시기의 작업을 총망라했다. 이를 통해 박 화백의 독창적 작품 정신과 '그대로 화풍'의 전개 과정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전시 구성은 박 화백이 집중해서 그렸던 소재와 주제별로 구분하여 그 안의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토속적인 한국성과 무속성을 반영하고 한국 채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박 화백만의 독창적인 미술세계를 재조명해 그가 정립하고자 했던 미술세계를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불교와 함께해온 장흥 역사

특별전 '길이 길이 흥할 땅, 장흥'

국립나주박물관 9월 1일까지


〈월인석보〉 권 25

불교문화와 함께해온 전남 장흥군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과 장흥군청은 9월 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길이 길이 흥할 땅, 장흥'을 개최한다.

동양 3보림으로 불리는 보림사를 비롯해 장흥군의 역사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이번 전시에는 〈월인석보〉 권25(보물 제745-9호)를 비롯해 장흥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250여 점의 문화재가 전시되고 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장흥 지역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장흥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전시를 구성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으며, 그 중 △2부 '찬란한 불교문화와 장흥의 탄생'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보림사, 천관사 등 고찰과 관련된 불교문화재, 공예태후의 부군 인종과 아들 명종의 무덤에서 나온 문화재, 그리고 고려시대 장흥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유물들을 선보인다.

1995년 보림사에서 발견된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을 개고해 합편한 책으로, 석가모니 일대기의 결정판일 뿐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이후 제일 먼저 나온 불경언해서다. 또한 당시의 글자나 말(言)을 그대로 보전하고 있어 국어사(國語史)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문헌이다. 신미 스님을 비롯해 수미, 설준, 홍준 등 당대의 불학(佛學)을 대표하는 선지식들과 유학자인 김수온 등이 참여했다. 책은 〈월인천강지곡〉의 각 절을 본문으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석보상절〉은 주석과 같은 형태로 하여 엮었다. 원본이 완전히 전하지 않아 전권의 파악이 명확하지 않지만 30권 이내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5년 12월 보림사에서 제25권이 발견됐다.

앞선 △1부 '바다를 통해 성장하다'에서는 장흥의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구석기 후기의 대표적인 유적인 신북유적, 방촌리 고인돌을 비롯한 고인돌 유적 그리고 마한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장흥의 지역문화를 보여준다. 특히 〈대포황천(大布黃千)〉은 기원 전후부터 중국과 한반도 간의 교류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3부 '사림의 고장, 장흥'에서는 조선시대 장흥의 문화를 소개한다. '문림의향(文林義鄕)'의 고장이라는 말과 같이, 장흥은 많은 문인과 지사들이 나온 곳으로 이와 관련된 문화재가 함께 소개된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장흥 석대들전투를 조명한다.

△4부 '문예의 전통을 잇다'에서는 근현대 장흥의 문화와 역사를 소개한다. 뛰어난 문인들이 많이 나온 점을 강조하여 한국현대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문인들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유필(보물 제569-7호)도 소개한다.

국립나주박물관은 8월 8일 '고려왕조 장흥을 만들다'와 '장흥의 동학력명과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장흥 관련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061)330-7800.

박재완 기자

